



이 동 식 / KBS-TV 편집주간

가장 우아한 인생

하디 에미스경, 영국 패션업계의 대부이자 우아하고 절제된 스타일로 수 십년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의상을 제작해왔던 이 디자이너가 3월 5일 오후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 향년 93세. 측근에 의하면 에미스경은 런던 북서부랭포드에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호상인 셈이다.

향년 93살이기는 하지만 그는 2년 전까지만 해도 현역이었다. 공식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이 지난 2001년 말. 물론 그 때까지 직접 재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86살 때까지도 일주일에 4일씩 꼬박꼬박 출근해서 사업을 감독, 지휘하고 옷에 대해 지도를 해주다가 아흔 살이 넘어서야 은퇴(?)를 했다.

예전에 양복하면 영국을 첫 손으로 꼽았는데, 그 양복의 본산은 런던에 있는 새빌 로(Savile Row)라는 거리이다. 그는 1946년 이 거리에서 처음 작품을 선보인 에미스는 1951년 당시 공주이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름으로 클라렌스 하우스로 찾아가서 공주가 입을 옷의 스케치를 제출함으로써 엘리자베스 여왕과 인연을 맺는다. 그 때 그의 스케치들은 너무 속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추구한 왕실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때부터 영국 왕실과 인연을 맺은 지 50여 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옷을 전담해 옴으로써 영국 패션가에서 최고의 명성을 지켜왔다.

그가 만든 여왕의 옷은 품격과 대담성을 동시에 지녀,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의 손님 중 하나였던 다이내나 왕세자비의 경우에도 젊은 여인으로서의 몸매를 시원하게 드러내주면서 전체적으로는 기품을 잃지 않



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옷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서 언젠가는 하나님도 신사복 정장을 입는다면 다섯 버튼의 정장을 입을 것이라고 말해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다. 또한 “낮에 입는 옷은 리치호텔의 바에서나 솔리스베리의 역에서나 똑같이 좋게 보여야 한다”라거나, “우리 고객들은 한 발은 도시에 두고 있고 한 발은 시골에 두고 있다”며 패션의 보편성을 강조한 말은 의상 디자인계의 금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손님으로는 여왕을 제하고도 다이애나 왕비, 영화배우 비비안 리, 그리고 다디앤 쿠퍼 여서 등이 포함돼 있지만 역시 그는 영국여왕의 의상디자이너로서 보다 더 길게 기억될 것이다. 그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총매상액이 2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공을 했다.

일부 비평가들로부터 촌스럽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에이미스의 의상들은 패션잡지의 표지나 광고에 등장하는 모던계열의 의상들을 비웃으며 지금까지도 영국여왕의 공식 의상이 되고 있고 그 공로로 1989년 왕실에서 기사작위를 받음으로서 에이미스 경이 됐다.

버킹엄궁은 성명을 발표하고, ‘그는 오랫동안 여왕의 의상을 위해 헌신해왔다’면서 ‘여왕이 그의 사망 소식에 매우 슬퍼했

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부러운 것은 아흔 살이라는 고령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점, 자신의 패션에 대한 안목과 자부심으로 자신의 직업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었다는 점, 세속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추구했다는 점이다.

요즈음 영국에서는 증권에서 돈을 크게 벌어서 40살도 되기 전에 은퇴를 한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50만 넘으면 자의반 타의반 은퇴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90이 넘어서까지 자기 일을 갖고 이를 가장 즐기면서 일해왔고 또 조용히 임종을 함으로서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보여진다. 인생이 힘들어 자살이 횡행하는 요즈음, 하디 에이미스경의 부음소식은 아주 우아하게 살다간 한 성공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있다. PPFK